

지역 소식통

부안군 RPC협의회, 천년의 솜씨 단지 이행점검 따른 수매 논의

부안군 RPC협의회는 지난 10일 부안 농업 RPC에서 협의회를 열고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천년의 솜씨 단지 이행점검과 벗짚환원 및 조생종 벼 수확에 따른 100% 수매 등을 논의했다.

부안군 RPC협의회는 6개 RPC가 순환제로 협의회를 주축해 쌀값동향 및 품질 개선, 시장관로 개척, 시설현대화 등을 협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는 등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79개 단지 2200ha를 대상으로 종자대 및 GAP 인증, 생산장려금 등 총 11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군은 지난 6월 10일 비 이양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중 이형주, 잡수, 도복된 필지를 점검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대한민국 최고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농업경영과 이등근과장은 "쌀 수급개방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해 명품 부안 쌀 '천년의 솜씨' 브랜드 육성으로 전체 부안 쌀값 동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및 차별화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천년의 솜씨'를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지원해준다.

올해는 전복도와 재원을 분담해 총 3900만원의 예산으로 4세대를 지원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16세대에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해 무주택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 중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안군, 참여예산제 분야 '최우수'

사업발굴·결정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도 '호평'

부안군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여예산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 문제 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전국 132개 지자체 325개의 사례가 접수돼 역대 경진대회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부안군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진정성 있는 주민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부안군민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남아오르다"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부안군이 내세운 주민참여 예산제도 핵심은 그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을 공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읍면별 지역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와 협의를 거친 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며,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10억 원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반영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 민선 6기 동안 부안군의 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려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성숙한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매니페스토 '사회적 경제' 분야 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남연구원 주최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지난 9월부터 10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렸다.

시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참가, '공동체 육성 시스템을 활용한 실패 없는 정읍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왔다.

지난 2013년 지역 공동체 회복을 기치로 한 전국 최초의 공동체 육성 전담조직 발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뿌리-줄기-열매의 단계적 육성을 위한 정읍시민창의대회 추진 등이 대표적인 노력이다.

이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 분야 각종 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련해 시는 2015년 제2회 행복마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통령상 수상 등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농업회사법인 풍사방 유한회사"가 2014년 행정부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내장상동 송죽마을은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올해 연매출 2억 5000만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죽마을은 전국 최초로 마을연금 지급하여 2015년 행정부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지방대회 농어촌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친환경 에코시티 부가가치 창출 '도시재생 분야' 우수

고창군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9월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청년지방자치, 혁신과 지방분권'이란 테마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도시재생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 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활성화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국 13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325개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2개 사례에 대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현장발표를 함께 참관한 타 지자체공무원도 심사에 참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이라는 주제로 응모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고창=김영식기자



"무더운 여름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농협 부안군지부, 우덕마을에 '사랑의 삼계탕' 전달

농협 부안군지부와 부안중앙농협이 말복인 지난 11일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을 방문, 사랑의 삼계탕을 전달했다.

농협 부안군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참여율이 낮아져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열린 행사로서, 우덕마을은 작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명예이장'으로, 1,000여명의 분부직원들이 명예주민으로 위촉되어 있는 곳이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나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

려는 운동이다. 배인태 농협 부안군 지부장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으로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우덕마을 이장은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취약(소)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문화·교육·주거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전하며 "이런 시점에서 농협이 새로운 도농협동 운동을 통해 명예마을과 교류가 활발해져 앞으로 농촌의 활력 회복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 선정

정읍역사거리~연지아트홀 구간 명품 간판 정비, 경관 개선 등 기대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2억 5000만원에 시비 2억5000만원을 더한 총 4억1000만원을 투입해 정읍 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540m 구간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선 올해 초 전북도 공모사업에서 정읍역~정읍터미널 구간 간판개선(50여개) 사업이 선정돼 2억 원을 확보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와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 정읍역에서 연지아트홀(750m) 구간 내 150여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 구간은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구이다.

시는 구간 내 노후되고 난립해 있는 간판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도 돋보이는 명품 간판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간판을 일정한 높이로 맞추고 일대의 역사와 문화, 업소별 특성을 간판의 체제와 색채에 담아 새롭게 꾸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나아가 옛 도심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김성기 시장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건물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거리경관을 개선하고 선진 간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boxes,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